

日本 정유산업의 設備투자 동향

I. 수급·가격동향

1. 생산현황

1986년의 연료유 생산량은 1억5,699만kl로 1985년의 1억6,286만kl에 비해 3.6%가 감소되었다. 다시말해 지난해 상반기 생산량은 7,190만kl로 85년 동기에 비해 5.6%가 감소했고 하반기의 생산량은 8,125만kl로 85년 동기에 비해 4.7%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발전용 B-C油 등의 생산량이 대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86년도의 생산을 유종별로 보면, 85년도에 비해 경유가 1.7%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경질중유가 0.9% 증가한 반면, 나프타 16.7%, 重油 14.5%, 등유 8.8%, B-C油 7.1%, 휘발유 5.0%, 제트연료유 1.5%가 각각 감소했다. 1987년도의 연료유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경유가 3.5% 증가를 비롯, 제트유, 휘발유가 각각 2.0%, 0.5% 증가를 보였으나, 나프타(12.2%), B-C油(4.6%), 등유(4.3%), 경질중유(3.9%), 重油(0.4%)등이 감소를 보였다.

연료유 전체를보면 2.2%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 판매현황

지난해 국내판매는 연료유 전체로 볼 때 1억8,378만kl로 85년 1억8,140만kl 보다 1.3%가 증가되었다. 지난 80년 이후 계속 감소해온 日本의 석유제품수요는 1983년에는

극심한 한파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증가됐으나 84년에 접어들어 전년도의 반동등의 영향으로 감소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85년도의 판매량은 발전용 B-C油의 수요가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비해 2.9%의 감소를 가져왔다. 86년도 판매량을 유종별로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 경유가 6.3%, 나프타가 5.2%, 제트연료유가 3.6%, 휘발유가 2.8%, 경질중유가 2.0% 증가했다. 그러나 重油, B-C油, 등유는 각각 14.2%, 3.6%, 0.7% 감소했으며, 연료유 전체로는 1.3%가 증가했다.

한편 87년도 연료유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경유를 비롯한 휘발유, 제트연료유, 등유가 각각 3.3%, 1.0%, 0.7%, 0.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B-C油는 8.1%, 重油는 6.9%, 나프타 3.5%, 경질중유는 2.9%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유 전체로 볼때는 2.0% 감소가 전망된다.

3. 原油수입 동향

86년의 原油수입량은 1억9,451만kl로 85년의 1억9,833만kl 보다 1.9%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상반기는 8,945만kl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고, 하반기는 9,806만kl로 전년동기보다 9.8%가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의 비축현황을 보면, 민간비축이 5,102만kl로 약 97일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인데, 국가비축이 2,199만kl(24일분)가 있어 전

체 비축량은 7,301만kl로 139일 지속분이었다. 최근 2월 말의 비축일수는 민간비축이 97일, 국가비축이 44일, 전체 140일이 되었다.

4. 정제능력, 가동률

주요설비인 상압증류탑의 처리능력은 1986년에 2만b/

d의 과잉능력을 처분, 1986년말 현재 476만b/d가 되었다. 그러한 결과 85년도의 상압증류장치 가동률은 62.3%로 전년도보다 3.1%가 떨어졌으며, 86년도는 상반기가 53.6%, 하반기가 64.3%였으며 연간 베이스로는 58.9% 수준에 머물렀다.

日本の 석유수급동향

	需 給 動 向 (燃料油計)										原油수입량		設 備 動 向		
	생 산	전년비	國內販賣	전년비	수출	전년비	수 입	전년비	재 고	전년비	전년비	정제능력	原油처리량	가동률	
1983	万kl 17,558	1.1	万kl 19,097	4.5	万kl 551	△30.3	万kl 2,151	26.2	万kl 1,188	△10.0	万kl 21,284	2.6	万BPSD 546	万% 333	% 1.0
1984	17,168	△ 2.2	18,642	△ 2.4	426	△22.6	2,124	△ 1.3	1,259	6.0	21,291	0.0	497	325	65.4
1985. 상반기	7,617	△ 9.2	8,039	△ 6.2	219	△ 2.2	1,089	7.5	1,663	△ 4.3	8,945	15.2	497	286	57.4
1985. 하반기	8,585	△ 2.2	10,056	△ 0.2	176	△12.9	1,329	19.5	1,250	△11.4	10,780	0.3	497	334	67.1
計	16,202	△ 5.6	18,095	△ 2.9	395	△ 7.4	2,418	13.8	1,250	△ 0.7	19,726	△ 7.4	497	310	62.3
1986. 상반기	7,190	△ 6.4	8,053	0.2	140	△36.1	1,385	27.2	1,085	△34.8	8,945	△ 0.0	497	266	53.6
1984	17,656	3.4	19,109	3.6	434	△29.1	2,125	4.3	1,612	4.3	21,460	3.3	497	334	67.1
1985	16,285	△ 7.8	18,141	△ 5.1	431	△ 0.7	2,239	5.4	1,431	△11.2	19,833	△ 7.6	497	310	62.3
1986	15,700	△ 3.6	18,378	1.3	285	△33.9	3,104	38.6	1,417	△ 1.0	19,451	△ 1.9	495	297	59.9

5. 코스트, 가격동향

자유세계의 석유수급은 代替에너지의 도입, 에너지절약 정책의 추진등으로 80년이래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日本의 原油 수입가격(CIF)은 달러베이스로 81년 4월 39.49달러를 정점으로하여 석유수급의 완화등을 배경으로 하여 점차 하락되어 오다가 83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배럴당 5달러라는 대폭적인 가격인하 조치로 동년 5월부터 29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후 85년 1월말 OPEC에 의한 기준유가의 1달러 인하등으로 油價는 27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동년 12월 OPEC는 공정한 시장점유율의 확보선언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트백 방식 原油판매를 계기로 油價는 86년초부터 급락, 한때 배럴당 10달러 이하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12월총회에서 18달러 고정유가제가 채택,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급년 2월에는 油價가 고정유가에 접근하여 배럴당 17달러까지 회복되었다.

한편 환율은 1985년 9월하순 선진5개국 재무장관회의

(G5)를 계기로 급격한 円高현상이 발생, 1986년 1월에 달러당 200円이었던 円화의 달러환율이 최근에는 140円으로 떨어졌다. 제품가격도 석유업체의 과당경쟁을 배경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나, 円高 및 低油價등으로 87년에 접어들면서 OPEC의 원유가격의 인상과 기업수익력을 바탕으로 제품가격은 상승일로에 놓여있다.

II. 기업경영동향

1985년도 결산은 34개 석유회사를 대상으로 해볼때, 매출액이 25조385억円, 84년도에 비해 402억円이라는 매출액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또 85년도 후반부터 급격한 円高현상으로 대폭적인 환차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시장 불황에 의한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경상이익은 전년도 보다 49억円이 증가한 971억円에 그쳤다.

한편 1986년 상반기 중간결산을 보면 엔고, 원유가 인하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고가의 재고 및 판매가격의 대폭 하락등 때문에 경상이익은 1,255억円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것은 1985년 하반기보다 724억円이 감소된 수준이다. 1986년도 하반기는 原油가격이 8월을 최저점으로 하여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최종소비가격은 시장침투방법이 여의치 않아 경영에 반영하지 못했다.

日本 석유회사 경영실적

(단위 : 億円, %)

	1984	1985	1986상반기
매출액	255,787	250,385	73,208
경상이익	922	971	1,255
환차익	△657	3,490	861
매출액경상이익율	0.36	0.39	1.71
총자본경상이익율	0.69	0.77	1.22
자기자본비율	7.74	9.91	13.50

Ⅲ. 설비투자동향

1. 1986년도 설비투자 실적

지난해 설비투자액은 2,666억円으로 85년의 2,498억円에 비해 6.8%가 증가된 수준이다. 설비투자액은 주요정제 시설투자 및 공해방지 시설투자가 활발했던 1974-1975년도를 최절정기로 하여 그후 격감되었다. 그후 비축탱크투자 및 저유소 시설투자등의 증가에 의해 33,500억円 정도의 투자수준이 유지되어 왔으나, 82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6년도의 설비투자액은 86년 9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2,965억円이었으나 이번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299억円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공사의 연기등에 의해서 투자가 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내용으로 보면, 정유 공장 부문이 1,278억円으로 85년도 1,356억円에 비해 5.7%가 감소했고, 보안방재 시설 투자가 37.7%감소, 정제시설 자체 17.1%감소, 공해방지시설 16.5%, 저유시설이 12.3% 감소된 반면, 부대시설 투자는 25.9% 증가했다. 다시말해 정제시설 자체투자에 있어 접촉개질시설, 분해시설등의 시설투자가 감소했고, 공해방지 시설투자는 탈황시설투자가 감소했으며, 부대시설투자는 용역시설, 출하시설투자가 증가됐다.

유통시설 부문 투자는 1,131억円으로 85년도의 904억円에 비해 25.2%가 증가했다. 이것은 주유소 및 저유소에 대한 효율화등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부문의 투자는 223억円으로 85년에 비해 13.2%가 증가했으며, 연구개발, 복리후생시설 및 토지, 건물, 구축물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끝으로 유지, 보수공사는 34억円으로 85년에 비해 16.6%가 감소했다. 86년도의 투자액을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가 50.1% 하반기가 49.9%인데 85년도에 비해 약간 상반기가 높은 편이다.

2. 87년도 설비투자계획 및 전망

8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2,821억円으로 86년도 실적 2,666 억원보다 5.8% 늘어났다. 주요내용을 보면, 석유제품의 수급구조 변화등을 반영하여 크래킹시설등 석유정제

부문별 설비투자 동향

(단위 : 億円, %)

	1985 (A)	1986 (B)	87년도 기업 응답기업 베이스		전 년 대 비	
			1986 (C)	1987 (D)	B/A	D/C
정유공장 부문 (구성비)	1,356 (54.3)	1,278 (47.9)	1,278 (47.9)	1,443 (51.2)	94.3	112.9
유통설비 부문 (구성비)	904 (36.2)	1,131 (42.4)	1,131 (42.4)	1,026 (36.4)	125.1	90.7
관리 부문 (구성비)	197 (7.9)	223 (8.4)	223 (8.4)	315 (11.2)	113.2	141.1
유지, 보수, 잡공사 (구성비)	41 (1.6)	34 (1.3)	34 (1.3)	37 (1.3)	83.4	109.8
합 (구성비)	2,498 (100.0)	2,666 (100.0)	2,666 (100.0)	2,821 (100.0)	106.8	105.8

2차 설비에의 투자와 주유소에 대한 효율화 투자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내역을 세분해 보면 정유공장 부문에 1,443억円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1,278억円에 비해 12.9%가 증가된 수준이다. 토지, 정제시설자체를 비롯해 저유시설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부문의 투자는 지난해보다 9.3%가 감소된 1,026억円이 투입될 것이며 주유소, 정유소에 대한 투자역시 감소될 것이다. 한편 관리부문도 지난해보다 41.1%가 늘어난 315억円이 투자될 것이며, 연구개발, 토지, 건설 구축물등에도 투자증가가 예상된다. 끝으로 유지, 보수, 잠공사도 지난해보다 9.8%증가된 37억엔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IV. 투자자금조달동향

지난해의 투자비 조달액은 85년도보다 9.2% 증가, 2,644억円이 될 것이다. 자금조달의 내역은 자기자금이 3,600억円으로 총조달액의 136.2%이며 사채가 210억円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식은 16억円의 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차입금은 1,182억円의 순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현상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자기자금 비중이

계속 100%를 상회하고 자기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차입금의 내역을 보면, 정부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이 263억円으로 감소를 보이고, 민간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순감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간금융기관으로는 장기신용은행이 172억円을, 도시·지방은행이 1,472억円을 대여를 하고 있으나 모두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87년도자금조달예정액은 2,853억円으로 86년도의 2,644억円에 비해 209억円이 증가됐다. 내역을 보면, 주식이 0, 사채가 270억円으로 순증가를 보이고, 차입금이 789억円으로 감소했으며, 자기자금이 3,372억円으로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자기금융으로 조달하고 잉여 자기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향이 보다 현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입금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금융기관으로 부터 209억円, 장기신용은행으로 부터 162억円, 도시 지방은행으로부터 344억円 등 차입금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순간석유정책에서>

설비자금 조달계획

(단위 : 억円, %)

	1985		1986		198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주 식	△98	△4.0	16	0.6	0	0.0
사 채	276	11.4	210	7.9	270	9.5
차 입 금	△653	△27.0	△1,182	△44.7	△789	△27.7
자 기 자 금	2,897	119.8	3,600	136.2	3,372	118.2
(감 가 상 각)	2,051	84.7	2,217	83.9	2,207	77.4
기 타	846	34.9	1,383	52.3	1,165	40.8
計	2,421	100.0	2,644	100.0	2,853	100.0

정직하고 겸허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자